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또래애착 및 학업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Stress on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Stress and Their Sequential Double Mediating Effects

1차원고접수: 2024.04.24. 수정원고접수: 2024.05.29. 최종게재결정: 2024.06.23.

안혜령¹ · 이경님²

¹동아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²동아대학교 아동학과, 명예교수

An, Hye-Ryung¹

Lee, Kyung Nim²

^{1,2}Dept. of Child Studies, Dong-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과 초등학생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 자료(2018)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동 1,384명과 그들의 어머니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PSS 23.0과 AMOS 23.0을 통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는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 각각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 학령기 자녀의 또래애착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행복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중재와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처자원인 또래애착 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방안과 관련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아동의 행복감, 또래애착, 학업스트레스,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stress on happiness, and examine sequential doubl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stress. Data from 1,384 children in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mothers were used from the 11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2018),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SPSS 23.0 and AMOS 23.0. First,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stress had a direct effect on their happiness. Second, the mother's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had an indirect effect on happiness through the child's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stress. Third, a sequential doubl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stress appea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and the child's happiness. This study showed that the mother's strong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can weaken school-age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increase academic stress, leading to a decrease in happiness. Furthermore, to improve children's happiness, the importance of mediating mothers'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and promoting peer attachment as a coping resource for alleviating academic stress was discussed and support was suggested.

Keywords *mother's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child's happiness, peer attachment, academic stress, sequential double mediation effect*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to 이경님 (Lee, Kyung Nim)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명예교수 (Dept. of Child Studies, Dong-A University) E-mail. knlee5603@naver.com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아동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표들이 보여주는 아동 행복 보장의 현주소는 그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5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 2,231명을 대상으로 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2023 아동행복지수’ 조사(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3)에서 86.9%에 해당하는 아동의 행복지수가 ‘하(下)’였고, ‘하’에 해당하는 비율은 직전년도에 비해 2.5% 높아진 수준이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9)에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평균 7.6보다 낮은 6.6점으로 모든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삶의 만족도는 행복감 및 우울감, 유테모니아로 측정되었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편임을 보여주었다. 인간의 생활은 이전에 비해 편리하고 윤택해졌지만, 모두의 미래인 아동에게 행복에 대한 인식이나 삶의 만족감이 낮은 편이라는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하다.

위와 같은 현실은 아동의 행복감의 수준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와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다. 행복감은 삶에 대한 주관적인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Diener, 2000, 2012; Diener, Scollon, & Lucas, 2003)이나 삶의 만족도(Huebner, 2004) 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알려지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평가이다(권석만, 2010; Lyubomisky, King & Diener, 2005; Seligman, 2011). 그동안 인간의 정신병리적인 어려움이 아닌 긍정적인 정서 경험에 초점을 둔 긍정심리학(Seligman, 2002, 2011)에서 행복의 의미를 집중 조명하였고, 관련 연구들은 이전 시기의 주관적인 행복감 수준이 현재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김시현, 2022; Ehrhardt, Saris, & Veenhoven, 2000) 이후의 삶을 예측할 만큼 중요함을 보여주었다(Bender, 1996). 무엇보다 학령기 아동이 주관적으로 경

험하는 행복감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아지며(기쁘다, 2022; Dillon, Minchoff, & Baker, 1986; Verkuyten & Thijs, 2002), 종단적인 차원에서 자아존중감이 증진되고(김시현, 2022) 학교적응이 더욱 원만히 이루어진다(채혜경, 2021)고 보고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이 경험하는 행복감이 그들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적응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중요한 내적 자원이 됨을 제시해 준다.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에게 행복감은 시기에 따른 변화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아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2학년에 4학년 사이 아동의 행복감 변화를 확인한 김시현의 연구(2022)에서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미미한 수준이지만 행복감의 감소가 나타났고,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3학년에 5학년 아동의 행복감 변화 궤적을 확인한 홍소정, 양승지, 이시은의 연구(2022)에서도 3학년 시기 아동의 행복감 평균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전미경과 장재숙(2009)의 종단연구에서는 4학년 때의 행복감이 5학년 때의 행복감 수준에, 5학년 때의 행복감이 6학년 때의 행복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행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달해 나감을 보였다. 앞에서 확인한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실태와 더불어 고학년에서 나타나는 행복감 수준의 저하, 행복감이 가진 개인 내 지속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초등학교 생활의 중반부이자 고학년으로 들어서는 시기에 있는 4학년 아동의 행복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성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인간의 안녕과 번영에 있어 행복감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며 그러한 행복감 수준을 높이고 낮추는 요인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Seligman, 2002, 2011; Wilson, 1968).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한 요인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위해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론적 관점 중 하나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다.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 개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을 둘러싼 가장 가까운 환경인 미시환경으로서 부모나 또래, 학교 등과 관련될

수도 있다. 아동은 그들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초등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행복감 수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기는 부모의 보호와 감독, 지지 속에 성장해 나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 행복감은 일차적인 양육자인 부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양육자가 자녀를 보살피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을 양육행동이라 하는데(Becker & Krug, 1965; Schaefer, 1965), 이는 자녀의 지식이나 가치관, 행동 습관 등을 습득시키고 지도할 때 일정한 기준이나 방식을 토대로 부모가 행하는 일반적인 행동의 경향성이자 반응양식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한 대표학자 중 Schaefer(1965)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민주형, 독재형, 보호형, 무관심형이라는 유형을 제시한 바 있으며, Baumrind(1973)는 부모 양육의 특성을 온정과 통제, 두 가지 수준에 따라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경우 권위적인(authoritative), 온정은 낮지만 통제가 높은 경우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온정은 높지만 통제가 낮은 경우 허용적인 양육행동으로 유형화하였다. 권위주의는 지배와 복종 관계에서 지배자의 독단적 지배력이나 권위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행동양식을 말하는 데(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자율성 허용은 부족한 가운데 엄격한 규율과 처벌 등을 활용하여 지시적이며 강압적인 방식의 양육이다(이선희, 2012; Baumrind, 1973).

많은 학자들이 유형화된 양육행동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는데 부모의 온정적(이은지, 도현심, 2020; 한영숙, 2020), 민주적(이종욱, 최한희, 박병기, 2012; 조은정, 2014)와 긍정적(류신혜, 박수아, 2023; 서정화, 김지아, 2023)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 수준을 높인다는 점이 밝혀져 왔다. 이렇게 긍정적 차원의 양육행동들에 대한 결과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온 것과는 달리, 부정적 차원의 양육행동 유형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은 편이다.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지고(박정현, 이경남, 2021), 행복감 수준도 낮아짐을 확인한 연구(윤지영, 2023)들이 있으나, 부모에 따라 그들의 양육행동 유형과 그것의 영향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대해 가지는 효과에 관심을 둔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 중에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 권위주의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 때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통해 미디어 중독이 약화됨을 보여준 연구(박보경, 노지운, 2019),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스타일과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 중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스타일만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연구(연은모, 최효식, 2022)가 있었다. 또한 아동과 부모 요인 중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짐(권희경, 김원경, 2020)을 보여준 연구도 있었다. 이들은 자녀의 행복감에 대한 부와 모가 제공하는 양육행동의 효과가 서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동의 행복감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차원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더 요구될 뿐만 아니라 부와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가지는 차별적인 영향력을 세밀하게 밝혀나갈 연구들이 활성화될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어머니의 권위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확인한 연구들(김성현, 이예다나, 2024; 박보경, 노지운, 2019; 이정자, 2023)이 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균형 있게 확장해 나가야 한다.

한편, 초등학생 시기의 아동을 둘러싼 가장 가까운 환경 중 하나가 부모라면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또래이다.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가정에서 학교로 점차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 새로운 발달 과업들을 수행하며 유능감

을 획득해 나가는데(Erikson, 1963), 아동에게 또래는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준다(Hartup, 1989). 더불어 아동이 또래와 맺는 정서적 유대감인 또래애착(Peer attachment, Perry & Bussey, 1984)은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나갈 수 있게 할 기반이 되어준다. 아동이 또래와의 애착을 적절히 형성할 경우 우호적인 관계 안에서 내적 긴장을 풀고 더 나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해나가며(Armsden & Greenberg, 1987), 학교적응을 원만히 이룬다(김모선, 2018). 영유아기에 주양육자와 맺는 안정적인 애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신뢰를 경험하며 적응적인 삶을 위한 안전기지를 형성하는 것(Ainsworth, 1989; Bowlby, 1969)과 같이, 아동기에는 또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정과 수용됨을 느끼며 서로 특별한 관계성을 맺어나간다. 그리고 이는 분명 그들이 일상을 긍정적으로 경험해나갈 수 있도록 할 토대가 된다. 아동의 또래애착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행복감 증진이며,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또래애착이 행복감(김상희, 2020; 성다겸, 김춘경, 2015; 홍은주, 김효은, 2022)이나 삶의 만족도(Ma & Huebner, 2008)를 높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사회적 존재인 아동이 또래와 맺는 안정적인 애착은 소통과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하여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애착이 각각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요인임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애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행복감으로 이어짐을 확인시켜주었다. 서정화와 김지아(2023)는 부모가 따뜻함, 자율성 지지, 구조의 제공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강하게 보임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 증진과 또래관계의 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짐을 확인하였고, 윤인숙(2020)은 부모의 공감과 또래애착이 모두 초등학교 5 ~ 6학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김서연, 2021), 부모양육태도의 부모수용-거부와 부모자율-통제와 학교

부적응 간의 관계(김모선, 2018),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김현주, 홍상환, 2015)에 관심을 둔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결과로 가질 때 그 과정을 특히 또래애착이 매개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부모의 성취압력과 같은 선행요인이 아동의 행복감을 가져오는 데 있어 또래애착이 중간 연결고리가 됨을 보여준 연구결과(한은수, 2022)를 함께 고려할 때, 어머니가 역제적이며 강압적인 성격의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 경우 그것이 아동의 또래애착 변화를 매개로 행복감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한 요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나가고자 할 때, 아동에게 학교는 가정 다음의 생활 터전이고 그들에게 부모나 또래만큼이나 핵심적인 미시환경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Bronfenbrenner, 1979). 즉 아동에게 학교, 그리고 학업과 관련한 경험은 그들에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이때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감 수준이 학업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으로 적응이 어려워 개인의 안녕을 위협할 때 개인과 환경과 가지는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데(Lazarus & Folkman, 1984),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을 수행해나가는 아동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수행하고 대처해나가는 데 있어 내적으로 심리적·신체적 압박이나 긴장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Burnett & Fanshawe, 1997; Fuentes, García-Ros, Pérez-González & Sancerni, 2019; Wilks, 20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의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학업이라고 본 우리나라 아동의 비율은 유럽국가들의 2~3배인 47.7%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학업스트레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최혜란, 2022). 보통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Fu, Ren, & Liang, 2022; Zhu, Haegle, Liu, & Yu, 2021), 행복감이 저하되고(김상희, 2020)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진다(강금주, 2022; 김영경, 2022). 이

러한 점에서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적절히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와 대처 모델을 제시한 Lazarus와 Folkman(1984)의 관점에 따르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있을 때 개인이 가진 자원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스트레스 체감이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스트레스원 제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활용에 대한 대처 행동이 달라진다. 그동안의 연구 중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가지는 관련성을 확인시켜주는 연구들이 있었다. 자율과 성취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학업지도에 대한 참여가 아동의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설명함을 보여준 조주은과 정옥분(2004)의 연구와 애착적 부모 양육태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짐을 확인한 임혜림, 김서현과 정익중의 연구(2014)가 있다. 이들은 어머니가 온정 수준은 낮고 통제 수준이 높은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 아동이 학업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게 하여 스트레스 인식을 높이고 행복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부분은 아동에게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은 부모 이외에도 또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정을 넘어 조금 더 넓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나가는 아동에게 또래는 가장 중요한 인적 환경이다(Hartup, 1989). 초등학생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스트레스 요인 제거나 능동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최혜란, 2022)되는 것과 같이, 아동이 또래와 긴밀한 애착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학업과 관련한 걱정과 불안 등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그 자체로 긴장감과 억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여 학업스트레스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안정적인 또래애착이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은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

가 행복감 저하를 가져오는 걸 예방할 수 있게 해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아동의 안정적인 또래애착이 그들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보여준 연구(민하영, 2013)가 있으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짐에 따라 행복감 수준이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짐을 보고한 연구(강금주, 2022; 김상희, 2020; 김영경, 2022) 결과도 있었다. 이들은 아동이 가까운 또래와 맺는 애착 수준이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주며, 특히 아동이 또래애착을 안정적인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학업스트레스 인식 수준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행복감의 경험을 증진시킬 것이라 추측을 하게 한다.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의 연구들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학업스트레스가 특히 높게 나타났고(박소영, 문혁준, 2012),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김수진, 2013)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는 행복감 저하를 가져왔다(김상희, 2020). 학령기에 학생으로서 부여받는 핵심과업인 학업에 대한 긴장이나 부담이 일상 속에서 아동의 행복감을 좌우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그러한 과정을 이끄는 경로에 대한 탐구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인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해 제공되는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또래애착이나 학업스트레스 수준 각각에 변화를 가져옴을 통해, 혹은 또래애착을 악화시켜 학업스트레스 체감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복감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모 혹은 어머니의 긍정적 차원의 양육행동에 주로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고 행복감의 총체적인 증진을 위한 본질적인 논의는 행복감의 증진뿐만 아니라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도 이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특히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가지는 매개효과, 그리고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

개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어머니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중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아동의 또래애착 증진 및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지원할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다음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1.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아동의 또래애착, 학업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 각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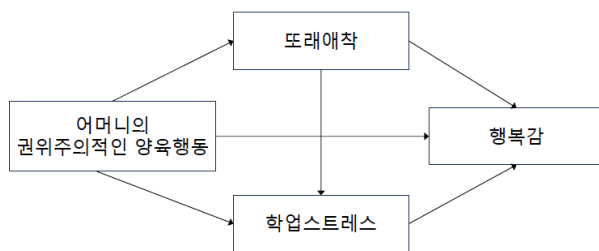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육아정책연구소에서 11차년도(2018년) 조사를 통하여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1차년도 조사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목표데이터를 추출한 후 사례 제거(listwise deletion)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변인 중 하나의 변인에서라도 결측치가 있는 사례는 모두 제외하였다. 최종 1,384명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1,384명이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아동 중 남아 705명(50.9%), 여아 679명(49.1%)이었으며 연령은 10세(평균 123.95개월)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41 ~ 45세가 587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36 ~ 40세 563명(40.8%), 46세 이상 154명(11.1%) 순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취업 중 746명(53.9%), 미취업/미학업 565명(40.8%) 순으로 많았고, 어머니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518명(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2 ~ 3년제 대학 졸업 397명(28.7%),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5명(26.4%) 순으로 많았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Robinson, Mandlco, Olson과 Hart(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고 수정한 양

표 1. 연구대상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 = 1,384)

연구대상	변인	구분	n(%)	연구대상	변인	구분	n(%)
아동	성별	남	705(50.9)	어머니	취업상태	취업 중	746(53.9)
		여	679(49.1)			병행 중	35(2.5)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64(4.6)			미취업/미학업	565(40.8)
		36 ~ 40세	563(40.8)			미응답	48(2.8)
		41 ~ 45세	587(43.0)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5(26.4)
		46세 이상	154(11.1)			2~3년제 대학 졸업	397(28.7)
		미응답	26(0.5)			4년제 대학 졸업	518(37.4)
						대학원 졸업 이상	89(6.4)
						미응답	25(1.1)

육행동 척도 중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화내기 4문항, 처벌 6문항,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 6문항, 지시 4문항의 모두 4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의 문항의 예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화내기)’, ‘아이를 훈육하는 한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한다.(처벌)’, ‘설명 없이 아이의 권리를 뺏는 벌을 주기도 한다.(비이성적 별주기 전략)’, ‘아이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시킨다.(지시)’ 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지시의 경우 ‘아이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한다’의 문항이 유일하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고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어머니 보고식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화내기 .65, 처벌 .83, 별주기 .74, 지시 .63, 전체 .88로 나타났다.

2) 아동의 또래애착

아동의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중 일부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에서 사용한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소외 3문항 3요인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 결과, 소외는 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값이 .42, CFA(확인적요인 분석)결과 요인적재치 .39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의사소통과 신뢰의 6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의 예시는 ‘친구들은 00(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니?(의사소통)’, ‘00(이)는 친구들을 믿니?(신뢰)’ 와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아동 보고식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의사소통 .69, 신뢰 .71 전체 .83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4 ~ 2008)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4 패널 문항 중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학업스트레스 관련 문항을 추출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3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는 ‘00(이)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니?’ 등이다. 각 문항은 ‘그런 적 없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아동 보고식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9로 나타났다.

4)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은 UK Millennium Cohort Study(2008)의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 6문항이며, 문항의 예는 ‘00이(이)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어떠하니?’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하여 꾸러미 방법(문수백, 2009)으로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측정변인으로 지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에서 ‘매우 행복해요(4점)’의 아동 보고식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행복감1 .64, 행복감2 .61, 전체 .7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토를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아동의 행복감 관련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애착 및 학업스트레스의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연구모형이 둘 이상의 매개변수를 가지는 다중매개모형일 때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구조모형의 적합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개별 매개효과 검증을 가능하게 해줄 일종의 가상 변수인 팬텀(phantom) 변수를 활용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홍세희, 2016). 예를 들어, X에서 Y로 가는 경로를 M이라는 변수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할 때 팬텀변수 P1과 P2를 생성하여 'X → P1 → P2' 경로에서의 간접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개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팬텀변수를 활용한 간접효과 추정 모델을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왜도의 경우 절댓값 .01 ~ 1.32, 첨도의 경우 .08 ~ 2.37의 범위로 나타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인 왜도 절댓값 2.0, 첨도 절댓값 7.0 이하(김대업, 2008)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애착, 학업스트레스, 행복감의 일부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유의한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는 절댓값 .06 ~ .47이었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의 측정변인의 일부는 아동의 또래애착, 행복감의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학업스트레스 측정변인들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동의 또래애착의 모든 측정변인은 학업스트레스의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행복감의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의 모든 측정

표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1-1	1-2	1-3	1-4	2-1	2-2	3-1	3-2	3-3	4-1	4-2
1	1-1	1										
	1-2	.61***	1									
	1-3	.55***	.58***	1								
	1-4	.57***	.46***	.45***	1							
2	2-1	-.07	-.07**	-.08**	-.04	1						
	2-2	-.08*	-.07**	-.09**	-.04	.71***	1					
3	3-1	.08**	.05	.07*	.04	-.17***	-.25***	1				
	3-2	.10***	.09**	.05	.09**	-.21***	-.26***	.56***	1			
	3-3	.11***	.09**	-.04	.07*	-.23***	-.26***	.45***	.67***	1		
4	4-1	-.09**	-.06*	-.08**	-.08	.38***	.43***	-.28***	-.41***	-.47***	1	
	4-2	-.06*	-.04	-.09**	-.03	.49***	.50***	-.26***	-.36***	-.35***	.63***	1
	M	2.59	2.01	1.97	2.83	3.11	3.22	1.80	2.19	2.16	3.29	3.32
	SD	.58	.66	.77	.65	.56	.61	.94	1.08	1.08	.52	.51
	왜도	-.01	.37	1.32	-.04	-.28	-.56	1.14	.65	.74	-.76	-.79
	첨도	-.10	-.43	2.37	-.12	.14	.08	.91	-.27	-.11	.47	1.05

주. 1.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1-1. 화내기, 1-2. 처벌하기, 1-3. 벌주기, 1-4. 지시하기, 2. 또래애착, 2-1. 의사소통, 2-2. 신뢰, 3. 학업스트레스, 3-1. 스트레스1, 3-2. 스트레스2, 3-3. 스트레스3, 4. 행복감, 4-1. 행복감1, 4-2. 행복감2

* $p < .05$, ** $p < .01$, *** $p < .001$.

변인은 행복감의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아동의 또래애착과 행복감 수준도 각각 낮은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높고, 아동의 또래애착이 강할 때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낮고 행복감의 수준은 높으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행복감의 수준이 낮음에 대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2. 측정모형 분석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감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표준화 카이자승치(χ^2/df) = 3.97, GFI = .98, RMR = .01, CFI = .98, RMSEA = .05, TLI = .97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측정모형의 적합기준(홍세희, 2016)을 충족했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도식화한 측정모형인 그림 2를 살펴보면 각 잠재변인과 측정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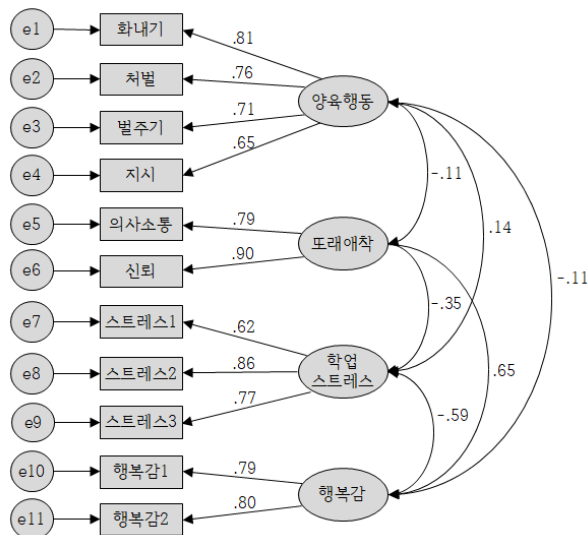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인들의 관계에서 요인부하량은 .62 ~ .90의 범위로 나타났고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적합기준인 .50이상(문수백, 2009)을 충족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서의 측정변인들은 각 잠재변인을 잘 설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11 ~ .65로 나타나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계수 적합기준인 .85이하(문수백, 2009)를 충족하였으며 이는 잠재변인들은 상호 독립적임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잠재변인은 측정변인을 잘 수렴하고 있으며 잠재변인 간에는 변별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아동의 또래애착 및 학업스트레스,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애착 및 학업스트레스의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χ^2/df = 3.97, GFI = .98, RMR = .01, CFI = .98, RMSEA = .05, TLI = .97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 모수치를 추정 후 변인 간의 경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으며,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주요 변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해볼 때,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동의 또래애착($\beta = .51, p < .001$), 학업스트레스($\beta = -.41, p < .001$) 각각의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했다. 즉 아동의 또래애착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χ^2/df	GFI	RMR	CFI	RMSEA	TLI
적합 기준	≤ 5	$\geq .90$	$\leq .05$	$\geq .90$	$\leq .08$	$\geq .90$
적합 지수	3.97	.98	.01	.98	.05	.97

낮아질수록 각각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졌다.

같은 표와 그림을 통해 주요 변인들이 아동의 행복감에 대해 가지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때,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애착($\beta = -.11, p < .001$)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은 행복감에 영향($\beta = .51, p < .001$)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beta = .10, p < .01$)을 미치고 학업스트레스는 행복감에 영향($\beta = -.41, p < .001$)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또래애착 수준이 낮아지고 아동의 또래애착 약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행복감 저하가 나타남을,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행

복감 저하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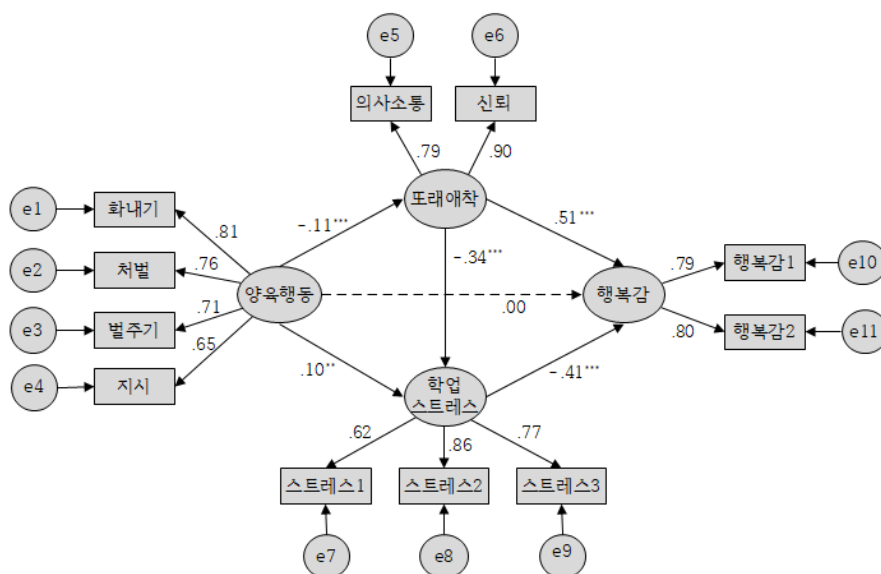
또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애착($\beta = -.11, p < .001$)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은 학업스트레스($\beta = -.34, p < .001$)에 영향을 미쳤으며, 학업스트레스는 행복감에 영향($\beta = -.41,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강해짐에 따라 아동의 또래애착 수준이 낮아지고, 아동의 또래애착이 약화됨에 따라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증가하며,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 저하가 따라옴을 의미하였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통해 개별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또래애착을 통해($B = -.05, p = .001$), 혹은 학업스트레스를 통해($B = -.04, p = .001$)

표 4. 구조적 관계 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변인 간의 경로		B	β	S.E.	C.R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 또래애착	-.12	-.11	.03	-3.48***
	→ 학업스트레스	.22	.10	.07	3.19**
	→ 행복감	.00	.00	.03	.04
또래애착	→ 학업스트레스	-.71	-.34	.07	-10.61***
	→ 행복감	.47	.51	.03	15.79***
학업스트레스	→ 행복감	-.18	-.41	.01	-12.90***

** $p < .01$, *** $p < .001$.



** $p < .01$, *** $p < .001$.

그림 3. 최종모형

표 5. 간접효과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변인 간의 경로	간접효과 계수		
	<i>B</i>	<i>S.E.</i>	<i>p</i>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 또래애착 → 행복감	-.05	.02	.001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 학업스트레스 → 행복감	-.04	.01	.001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 또래애착 → 학업스트레스 → 행복감	-.01	.00	.001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각각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거쳐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그것의 간접효과($B = -.01, p = .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이 아동의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 각각이 매개효과를,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유의한 수준에서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또래애착이 약화되거나 혹은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각각 아동의 행복감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동의 또래애착 약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높임을 통해 결과적으로 행복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각각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 자료(2018) 중 2008년생 1,384명의 아동과 어머니 대상의 자료를 토대로 SPSS 23.0과 AMOS 23.0을 활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행복감을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설정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은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채택된 모형에 기반을 두고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에 따라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복감에 대해 아동의 또래애착은 정적인 영향을, 학업스트레스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또래애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각각 아동의 행복감이 증진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또래애착을 강하게 맺을수록 행복감이 증진됨을 확인한 결과는 그동안 아동의 또래애착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가 행복감의 하나의 요인임을 보여준 선행연구(김상희, 2020; 성다겸, 김춘경, 2015; 홍은주, 김효은, 2022; Ma & Huebner, 2008)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존재하며(Bronfenbrenner, 1979),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이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나누는 가운데 높아질 수도, 혹은 저하될 수도 있다.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평가(권석만, 2010; Lyubomirsky et al., 2005)이며, 개인과 관련한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요인 중 아동의 또래애착은 행복감을 높일 경험들과 관련되고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행복감을 낮출 경험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자신과 유사한 발달단계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자 편안하게 결속되도록 해줄 또래와의 유대감 안에서 교감을 나누고 수용되며(Hartup, 1989)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 적응을 원만하게 이룬다(Armsden & Greenberg, 1987;

Perry & Bussey, 1984). 따라서 무엇보다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일상생활을 즐겁고 조화롭게 영위해 나가게 됨을 통해 행복감의 체감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아동의 스트레스 원인 중 학업스트레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수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행복감을 낮추는 요인이었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행복감을 낮춘다고 한 김상희의 연구(2020) 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이 학업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받게 되는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이라는 과업에 대한 수행과 기대와 관련하여 심리적인 긴장감이나 신체적인 압박 등을 느끼게 하고(Burnett & Fanshawe, 1997; Fuentes et al., 2019; Wilks, 2008) 우울이나 불안을 높인다(Fu et al., 2022; Zhu et al., 2021). 즉 아동이 학업스트레스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은 정서·심리적으로 지치게 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안녕감의 경험을 어렵게 하여 행복감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중기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들이 일상에서 또래와 맺는 친밀한 유대감 수준, 그리고 초등학생의 핵심과업인 학업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주 양육자로서 아동을 위해 행하는 양육행동이 그 특성에 따라 자녀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가짐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수준이 아동의 행복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행복감 수준이 낮아짐을 보인 윤지영의 연구(2023) 결과와는 상반되나,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한 기쁘다의 연구(2022) 결과와는 유사성을 가진다. 그동안 권위적인 양육행동(Alizadeh, Talib, Abdullah & Mansor, 2011;

Fan & Chen, 2020; Marcone, Affuso, & Borrone, 2020; Pinquart, 2017a, 2017b)이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을 일관성 있게 보여준 것과 대조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양육이 가지는 효과는 항상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애착이나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또래관계가 매개함을 보여준 연구(한영숙, 2020), 4학년 아동의 행복감이 가정변인에 비해 개인특성변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가정환경변인이 개인특성변인을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연구(전미경, 장재숙, 2009)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서는 시기의 아동의 행복감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 또래관계나 학업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네 가지 하위요인과 관련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전체 평균 점수는 2점인 ‘그렇지 않다’에 가깝고 모든 하위요인별 평균도 보통 수준인 3점보다 낮았으며 전체와 하위요인별 표준편차가 .54 ~ 7.7 사이에 있어 상당수의 아동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보통에 가깝거나 보통 수준 이하로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강도를 보일 때 행복감 저하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권위주의적 양육이 권위적인 양육행동에 비해 부와 모, 자녀의 또 다른 특성, 그 외 주변 요인 등과 상대적으로 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각각 매개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또래애착을 약화시켜 그것이 행복감 저하로 이어짐을, 그리고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마찬가지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높여 그것이 행복감 저하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아동의 또래애착이 보여준 매개효과와 결과는 그것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함(서정화, 김지아, 2023; 한은수, 2022)을 확인한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또래애착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증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김서연의 연구(2021)와도 일맥상통한다. 종합해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이 그 유형적 특성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성은 다를 수 있더라도 자녀의 또래애착을 낮추거나 높이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본격적인 생활 기반으로 삼게 되는 초등학생 아동에게 또래는 가장 가까운 교류의 대상이다. 아동이 또래와 형성하는 심리적 유대감인 또래애착이 부모의 영향이 아동의 행복감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은 애착의 근원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아동이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처음 맺는 심리적 유대감은 점차 더 넓은 사회 속에서 또래나 주변 대상에게 전이되며(Bowlby, 1969), 아동이 가지는 부모애착은 또래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이진영, 2017). 이때 아동과 부모의 애착은 둘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형성될 것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행동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통해 많은 통제와 억압을 제공하고 애정과 수용은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래와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거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Sroufe, Carlson, Levy, & Egeland, 1999). 자녀의 사고나 감정을 공유하는 부모의 정서적 태도로서 ‘공감’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또래애착 증진을 매개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임을 보여준 윤인숙의 연구(2020) 결과도 맥을 같이 하는 데 부모와 자녀가 깊은 공감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이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에 있음을 예상하게 하며, 따라서 공감대가 형성된 관계 내에서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과의 관계에서 경험해나가는 소통과 교감을 또래와의 관계로 전이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행복감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권위주의적 양육행동(Baumrind, 1973)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도 해석해볼 때,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강하게 할 때 애정의 결핍에 따라 아동이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타인과 애정과 신뢰 토대로 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의 통제와 그것에 따른 엄격한 규제로 인해 아동의 자율성 발달이 저해되어 또래와 관계를 자신의 판단과 능동적인 대처에 따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위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이 아동의 행복감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지를 탐구하고 그 중재를 모색하고자 할 경우, 강한 권위주의적인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또래애착 약화에 특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또래애착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어머니로부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증가가 나타나고 그것이 행복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낮춤을 보여준 선행연구들(연은모, 최효식, 2022; 이의빈, 김진원, 2022)과 유사성을 가진다. 아동기에는 여전히 주양육자의 보호와 관여 아래 생활을 해나가는 시기로, 어머니가 제공하는 양육의 영향이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의 수준에 도달하는 경로에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경험은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학업스트레스를 높임을 통해 행복감 저하로 이어지는 경로는 양육행동

이 양육자가 자녀를 보살피며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 경향성(Becker & Krug, 1965)으로 나타나므로 어머니가 보이는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일상 전반에 있어 포괄적으로 발휘될 수 있음을 토대로 이해해볼 수 있다.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어머니는 학업이 학령기 아동의 대표 과업인 만큼 자녀의 학업수행과 관련하여서도 엄격한 규율을 제공하고 통제와 처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지는 가운데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통해서도 촉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정과 수용은 적게 보이며 감독자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담당하는 어머니의 억압과 통제는 학업과 관련한 차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대치 제공이나 엄격함으로 이어져 아동에게 학업성취압력(남상필, 이지연, 장진이, 2012; Kaynak, Sevgili Koçak, & Kaynak, 2023)으로 가해질 수 있다. 아동은 일상 속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인식(전미지, 2023)과 그에 대한 압박(홍예지, 2023)을 느끼는 존재이며, 어머니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 압박을 통해 그 안에서 스트레스 가중을 경험한다고 보고된다(손승희, 정지나, 2021; 정영미, 2021)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어머니는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인적 환경으로, 그들의 강한 규제와 처벌 등은 일상에서 아동의 학업에 대한 관여와 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나 긴장감, 불안 등의 유발은 아동이 삶에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어렵게 하고 행복감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구체적으로 이해해볼 때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인식인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고(이민희, 2022), 고통이나 고난이 있는 상황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알아차리며 자신을 끌어안는 태도인 자기자비 수준도 떨어뜨려(오영미, 허일범, 2016) 행복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적으로 과도

한 사교육 실행 실태 그 자체를 넘어 개별 아동이 체감하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불어 학업스트레스 증가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행복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인식 및 행동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도 재고하게 한다.

셋째,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 향상에 기여하였고, 이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강해질 때 아동의 또래애착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학업스트레스 증가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감 저하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또래애착 저해와 학업스트레스 악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삶에서 핵심영역인 또래관계와 학업에 있어 경험 변화를 순차적으로 유발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옴을 보여준 김현주와 홍상황의 연구(2015)와 맥을 같이 한다. 나아가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이르기까지 함께 영향력을 미친 결과는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초등학교 5 ~ 6학년과 중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윤명숙, 조혜정과 이현희의 연구(2009) 결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 학업,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행복감의 경험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며, 그것이 아동의 안정적이지 못한 또래애착과 그로 인한 높은 학업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선행요인이 되고 나아가 행복까지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강해짐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 악화가 우선적으로 따라오고 그다음 학업스트레스가 증가됨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을 낮아질 수 있음을 밝히며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 저하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 중 하나를 새롭게 확인시켜 주었다. 무엇보다 원만하게 형성하지 못한 또래애착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증가를 가져와 행복감을 낮추는 데 기여함을 보여준 결과는 어머니가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한적 양육행동 수준을 높게 보이거나 아동의 또래애착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한 민하영의 연구(2013) 결과, 그리고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또래관계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확인한 연구(서현주, 최형아, 2017)의 결과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 저하를 이끄는 과정에 앞서 특히 아동의 또래애착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아동의 또래애착, 학업스트레스, 행복감 간의 영향 경로는 스트레스-평가-대처 모델(Lazarus & Folkman, 1984)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경우 아동에게 스트레스 증가가 일어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와 또래가 가장 가깝고 따뜻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을 때 그들은 그 자체로 아동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원만한 대처행동을 도울 모델링의 대상자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통해 온정이 아닌 통제를 제공하고 또래를 통해 심리적 안정이나 포용을 경험하지 못할 때, 아동은 외로운 존재로서 스트레스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강하게 작용할 때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받는 애정과 수용에 대한 결핍이나 지나친 통제와 억압 등으로 인해 자아효능감(임순선, 2013)이나 자아탄력성(임은혜, 2022) 등이 낮아질 수 있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강해짐에 따라 아동의 자아효능감이나 자아탄력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결정성을 추구(Ryan & Deci, 2006)하는 과정에서 또래에게 자율적이며 적극적으로 다가가 교감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역량의 발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지나친 권위에 의해 억제된 아동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점차 커져가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쉽지가 않을 또래를 만나 가정 밖의 지지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안정해진 또래애착은 아동의 내재적 욕구 만족 수준을 낮추어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남진연, 김준경, 2015) 그것이 학업스트레스 경험으로 이어져 행복감 저하를 순차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에서 시작된 애정 부족이나 억제가 아동이 또래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학령기 주요 과업인 학업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여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감이라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양육, 또래관계, 학업의 각각의 차원에서 아동을 위한 사전 중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의와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의 관점에서 아동의 행복감을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토대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의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환경인 어머니, 또래, 학업 등과 연결하여 행복감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이 보이는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 요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은 주로 사교육 수준(성경환, 유재봉, 2023)이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연은모, 최효식, 2022; 홍예지, 2023) 등에 관심을 두었으나, 더 전반적인 차원에서 부모의 통제와 억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권위주의적인 양육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연결하여 이해하고자 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에게 초점을 맞춘 결과를 통해 선행연구 결과를 세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일상적 교류의 대상인 또래와의 애착, 학령기 핵심 과업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인간 발달의 목적인 행복감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연속적이며 포괄적으로 발휘함을 보여주며 기존 연구의 논점을 확장시켜주었다는 데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맞춤형 부모 교육이나 상담, 양육기술 개선 프로그램, 부모공동성장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적극 모색하고, 아동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이나 학업스트레스 경험이 아동의 행복감을 앗아가지 않도록 학교와 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포래앳’이라는 강력한 지지원 형성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함에 따라 아동은 능동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하게 될 경향이 높다(최혜란, 2022)는 점도 참고할 만하며,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이 포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교감하는 가운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의 다양한 성인들이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성취지향적인 목표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개별 아동의 개성과 흥미, 자율성을 존중하고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방식으로의 양육 및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와 환경의 정비에 필요함에 대한 제언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아동패널 11차년 자료를 통해 아동 1,384명과 그들의 어머니 대상 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표집 수는 충분하였으나 2008년생,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중심의 표집이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척도는 패널조사를 위해 사용된 척도들이며,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포래앳 각각에 대한 원척도가 1995년, 1987년에 만들어져 다소 시기가 오래되었다는 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사용된 척도는 총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전체 문항 수가 적었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반복 검증해보아야 한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의 영향력 차이, 그리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 등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요인은 아니었다. 향후 아동의 행복감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아동의 성별

이 가지는 영향력에 더욱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금주 (2022).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만족의 조절효과. *청소년연구*, 29(2), 155-182.
<https://doi.org/10.21509/KJYS.2022.02.29.2.155>
- 권석만 (2010).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철학사상*, (36), 121-152.
<https://doi.org/10.15750/chss..36.201005.004>
- 권희경, 김원경 (2020). 아동의 심리적 요인,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심리적 요인과 아동 집행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4(1), 143-162.
<https://doi.org/10.32349/ECERR.2020.2.24.1.143>
- 기쁘다 (2022). 부모 결혼만족도와 초등학교 자녀의 행복 및 문제행동의 종단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30(3), 439-463.
<https://doi.org/10.21479/kaft.2022.30.3.439>
- 김대업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 파주: 학현사.
- 김모선 (2018).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포래앳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명대학교 복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 (2020). 부모앳과 포래앳,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서연 (20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포래앳의 순차적 매개효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이예다나 (2024). 어머니의 권위적인 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초등학교의 전반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1(1), 209-228.
<https://doi.org/10.21509/KJYS.2024.1.31.1.209>
- 김수진 (201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현 (2022).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아동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간 종단적 관계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7(1), 357-363.
<https://doi.org/10.21097/ksw.2022.2.17.1.357>
- 김영경 (2022).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그릿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성취압력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집*, 23(11), 462-477.

- <https://doi.org/10.5762/KAIS.2022.23.11.462>
 김현주, 홍상황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https://doi.org/10.20972/kjee.26.1.201503.413>
 남상필, 이지연, 장진이 (2012). 학업성취 압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3), 219-230.
 남진연, 김준경 (2015).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1(2), 505-526.
 류신혜, 박수아 (2023). 부모의 긍,부정 양육태도와 자녀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매개효과: 초등학생, 중학생 집단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교육발전*, 43(2), 289-310.
<https://doi.org/10.34245/jed.43.2.289>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파주: 학지사.
 민하영 (2013). 어머니의 반응적 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47-459.
<https://doi.org/10.5934/kjhe.2013.22.5.447>
 박보경, 노지운 (2019).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3), 87-103.
<https://doi.org/10.5723/kjcs.2019.40.3.87>
 박소영, 문혁준 (2012). 아동의 가족건강성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 *인간발달연구*, 19(1), 143-162.
 박정현, 이경남 (2021).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학업수행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3(2), 93-116.
<https://doi.org/10.36431/JPE.13.2.5>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40&act=view&list_no=358344&tag=&cg_code=&list_depth=1에서 2024년 4월 17일 인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서정화, 김지아 (202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행복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릿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32(4), 69-82.
<https://doi.org/10.17643/KJCE.2023.32.4.04>
 서현주, 최형아 (2017). 중·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 또래, 교사 관계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 30(2), 51-78.
 성경환, 유재봉 (2023). 초등학생의 사교육이 또래관계 및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6), 787-799.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6.787>
 성다겸, 김춘경 (2015). 초등학교학년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4), 129-142.
<https://doi.org/10.5723/KJCS.2015.36.4.129>
 손승희, 정지나 (2021).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생활과학지*, 30(5), 761-770.
<https://doi.org/10.5934/kjhe.2021.30.5.761>
 연은모, 최효식 (2022). 부모의 양육스타일,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4), 313-328.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4.313>
 오영미, 허일범 (2016).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4(2), 59-74.
<https://doi.org/10.35151/kyci.2016.24.2.004>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0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과 음주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과 음주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131-156.
 윤인숙 (2020). 부모 공감, 또래애착, 자기격려,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지영 (2023). 권위주의적 모(母)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술 수행능력의 매개효과. *미술심리치료연구*, 2(2), 53-67.
<https://doi.org/10.54071/APS.2.2.3>
 이민희 (2022).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6(1), 19-35.
<https://doi.org/10.21459/kccr.2022.26.1.19>
 이선희 (2012).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지, 도현심 (2020).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행동 및 초등전환기 아동의 행복감 간의 종단적 교류 및 매개 관계. *아동학회지*, 41(4), 91-104.
<https://doi.org/10.5723/kjcs.2020.41.4.91>
 이의빈, 김진원 (2022).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69), 129-158.
<https://doi.org/10.17854/ffyc.2022.01.69.129>
 이정자 (2023). 어머니와 아버지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27(3), 17-28.
 이종욱, 최한희, 박병기 (2012). 부모양육방식과 자녀발달특성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교육*, 21(4), 275-296.
<https://doi.org/10.5723/kjcs.2020.41.4.91>
 이진영 (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교사애착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순선 (2013).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발달의 통합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2), 1-26.
- 임은혜 (2022). 모의 권위주의적 통제 및 애정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전미경, 장재숙 (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 전미지 (2023). 어머니의 마음챙김양육과 아동의 마음챙김, 학업성취압력인식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미 (2021).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업수행능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2(2), 2777-2789.
<https://doi.org/10.22143/HSS21.12.2.195>
- 조은정 (2014).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 103-126.
<https://doi.org/10.17854/ffyc.2014.01.37.103>
- 조주은, 정옥분 (2004).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3), 135-155.
- 채혜경 (2021). 아동의 행복감,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 간의 종단적 관계. *인문사회21*, 12(5), 1617-1626.
<https://doi.org/10.22143/HSS21.12.5.114>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3). '2023 아동행복지수' 생활지수 조사 조사 (연구보고 2023-02). <https://www.childfund.or.kr/institute/dataList.do> 에서 2024년 3월 17일 인출
- 최혜란 (2022).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이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공존의 인간학*, (8), 301-330.
<https://doi.org/10.37524/HUCO.2022.07.8.30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보고 18-R12-1).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_x=635&seltab_idx=0&edomweivgp=R에서 2024년 3월 18일 인출
- 한영숙 (2020).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종단적 관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41(3), 13-23.
<https://doi.org/10.5723/kjcs.2020.41.3.13>
- 한은수 (2022). 부모의 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또래애착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8), 587-600.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8.587>
- 홍세희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양한 확장: 중급. 서울: S&M 리서치그룹.
- 홍소정, 양승지, 이시은 (2022). 잠재성장모형과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학령기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분석. *교육발전*, 42(2), 665-689.
<https://doi.org/10.34245/jed.42.2.665>
- 홍예지 (2023).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의 변화 유형과 심리·정서적 및 인지적 특성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44(3), 279-291.
<https://doi.org/10.5723/kjcs.2023.44.3.279>
- 홍은주, 김효은 (2022). 부부갈등이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 및 또래 애착의 이중매개 효과: 초등학교 4-5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7(4), 35-54.
<https://doi.org/10.23931/kacp.2022.17.4.35>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
<https://doi.org/10.1037/0003-066X.44.4.709>
- Alizadeh, S., Talib, M. B. A., Abdullah, R., & Mansor, M. (2011).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ian Social Science*, 7(12), 195-200.
<https://doi.org/10.5539/ass.v7n12p19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7, pp.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cker, W. C., & Krug, R. S. (1965). The parent attitude research instrument—A research review. *Child Development*, 36(2), 329-365.
<https://doi.org/10.2307/1126462>
- Bender, T. A. (1996). Assessment of subjective well-being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G. D. Phye (Ed.), *Handbook of classroom assessment* (pp. 199-225). MA, Cambridge: Academic Pres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attachment and loss*. NY, New York: Basic Book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nett, P. C., & Fanshawe, J. P. (1997). Measuring school-related stress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4), 415-428.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
<https://doi.org/10.1037/0003-066X.55.1.34>
- Diener, E. (2012). New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67(8), 590-597. <https://doi.org/10.1037/a0029541>
- Diener, E., Scollon, C. N., & Lucas, R. E. (2003).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Advances in Cell Aging and Gerontology*, 15, 187-219.
https://doi.org/10.1007/978-90-481-2354-4_4
- Dillon, K. M., Minchoff, B., & Baker, K. H. (1986). Positive emotional states and enhancement of the immune syste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15(1), 13-18.
<https://doi.org/10.2190/R7FD-URN9-PQ7F-A6>
- Ehrhardt, J. J., Saris, W. E., & Veenhoven, R. (2000). Stability of life-satisfaction over tim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 177-205.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Y, New York: Norton.
- Fan, J., & Chen, B. B. (2020). Parenting styles and coparenting in China: The role of parents and children's sibling status. *Current Psychology*, 39(5), 1505-1512.
<https://doi.org/10.1007/s12144-019-00379-7>
- Fu, Y., Ren, W., & Liang, Z. (2022). Perceived academic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adolescents: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of overweight statu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6, 224-232.
<https://doi.org/10.1016/j.jad.2021.09.060>
- Fuentes, M. C., García-Ros, R., Pérez-González, F., & Sancerni, D. (2019). Effects of parenting styles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stress in Spanish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5), 2778.
<https://doi.org/10.3390/ijerph16152778>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https://doi.org/10.1037/0003-066X.44.2.120>
-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33.
<https://doi.org/10.1023/B:SOCI.0000007497.57754.e3>
- Kaynak, S., Sevgili Koçak, S., & Kaynak, Ü. (2023). Measuring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academic pressure: A scale development study. *Current Psychology*, 42(2), 1477-148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https://doi.org/10.1037/0033-2909.131.6.803>
- Ma, C. Q., & Huebner, E.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77-190.
<https://doi.org/10.1002/pits.20288>
- Marcone, R., Affuso, G., & Borrone, A. (2020).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internalizing-externalizing behavior: The mediating role of behavioral regulation. *Current Psychology*, 39(1), 13-24.
<https://doi.org/10.1007/s12144-017-9757-7>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inquart, M. (2017a). Associations of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with ex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 updated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53(5), 873-932.
<https://doi.org/10.1037/dev0000295>
- Pinquart, M. (2017b). Associations of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with internalizing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Marriage & Family Review*, 53(7), 613-640.
<https://doi.org/10.1080/01494929.2016.1247761>
- Robinson, C. C., Mandl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https://doi.org/10.2466/pr0.1995.77.3.819>
- Ryan, R. M., & Deci, E. L. (2006). Self-regulation and the problem of human autonomy: Does psychology need choice, self-determination, and will?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57-1586.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6.00420.x>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https://doi.org/10.2307/1126465>
- Seligman, M. E.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Seligman, M. E.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Sroufe, L. A., Carlson, E. A., Levy, A. K., & Egeland, B. (1999). Im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for devel-

- 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1), 1-13.
<https://doi.org/10.1017/S0954579499001923>
- UK Millennium Cohort Study (MCS). (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Retrieved March 17, 2024, from <http://www.cls.ioe.ac.uk>
- Verkuyten, M., & Thijs, J. (2002). School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performance, peer relations, ethnicity and gend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2), 203-228.
<https://doi.org/10.1023/A:1016279602893>
- Wilks, S. E. (2008). Resilience amid academic stress: The moderating impact of social support among social work students. *Advances in Social Work*, 9(2), 106-125.
<https://doi.org/10.18060/51>
- Wilson, J. (1968). Happiness. *Analysis*, 29(1), 13-21.
<https://doi.org/10.2307/3327626>
- Zhu, X., Haegele, J. A., Liu, H., & Yu, F. (2021). Academic stress, physical activity, sleep, and mental health among Chinese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4), 7257.
<https://doi.org/10.3390/ijerph18147257>